

요나의 잘못된 동정심

핵심 구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은 이 식물을 걱정하였거니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었거늘, 내가
이 큰 니스웨 성을 걱정하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10,11

선별된 성경 구절:

요나 3:1-5; 4:1-11

니스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중 하나인 앓수르 제국의 수도였다(열왕기하 19:36).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니스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함 때문에 40일 후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라고 명하셨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왕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모두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위협하셨던 멸망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1:2; 3:1-10

그러나 “요나는 이를 심히 싫어하여 크게 분노하였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 목숨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 더 낫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요나 4:1-4

아마도 요나는 아시리아인들이 수 세대에 걸쳐 자기 백성을 잔혹하게 대했던 일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그는 심판이 집행되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간절히 바랐을지도 모른다(이사야 36장). 크게 실망한 선지자는 그 도시를 떠났다. 그는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려고” 근처 언덕에 앉아, 자신이 만든 그늘막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요나 4:5

그때 “하나님이 박을 준비하사... 요나에게 그늘이 되게 하셨고”, 선지자는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하신 벌레가 그 박을 망가뜨렸다. 해가 뜰 때,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찍니, 그가... 속으로 죽기를 원했다.” 요나 4:6-8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박나무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네게 싫은가?”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하룻밤에 자라 하룻밤에 시든 박나무를 불쌍히 여겼거늘, 내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나 4:9-11). “하룻밤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식물에 대한 요나의 관심과 연민과 니느웨 백성에 대한 그것 사이의 큰 대조를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아시리아인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복수하고 싶어 했기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삶과 행실을 변화시킨 것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나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진실성과 니네베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확인하셨습니다(누가복음 11:29-32). 이 구절의 31절과 32절은 니느웨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죽은 자들이 장차 지상에 세워질 왕국 시대에 부활할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당시 그분을 비난하고 박해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보거나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보다 더 가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받은 지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48